

형설수설

탄파촌에서
려운 여섯식구
단들박자살은 총
격이었다. 같은 6
일 취직이 안된다
고 속앓이를 태한女

大를업생의 焚身은 또다른
를라을이였다. 그노는 대화교
유까지 시를 부도된 불면부
이였다. 차라리 죽어 버린게
마를 편하겠다고 말하곤 했
다. 신분은 자살의 절원을 그렇
게 전한다. 그노는 그런 기분
에 이르러 죽고 싶어졌고 그순
간 이 세상의 학살고 미련을
끊어버렸는지 모른다. ◆그런
지왕고서야 불들은 달의 물에
어디나 물을 끼얹어 간 후
에도 신도된 자살의 특과 말
다리를 찢으면 할 수 있었을
까. 그런 그노가 비참하고
가엾게 생긴 도아 신분마다
이 자살을 크게 보도했을까.
아니,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
해 미안하다고 죽어버린다
니... 그것은 부모에게 더욱
못할 짓인 줄은 왜 생각의
이르지 못했나. 신분은 그
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같
다. ◆신분, 신원, 생황고, 그
런 것을 비판한 나미자의 자
살은 가끔 들어왔다. 그러나
대화를 잦았던 靑春의 취직
이 안되어 자살했다는 얘기가
그 절망이 생겼다. 그런 절로
무숨을 들이간 목숨 몇개 있
어도 부족한 것이 세상이다.
그것이 안타까와 신분마다
크게 본도한 것은 아닐까. 줄
업하면 누구나 문장 제발로
입에서 보고 싶은 것이지만
人生苦海, 세상일 뜻과 같
진 양인 것이다. ◆며칠전의
저명한 대기업 신원사원 제
용시원에 생각하면 입자라
를 못읽고 절망이나 부지기
수다. 간직이나 아직 명지만
자멸의 묘적철의 상연의
줄어들었다. 보단 절망의 여자
들이 단항에 나와 자영전선
의 부패 부끄러워 있다. 새로
배출되거나 또다시 불행의
입자라기 따라가지 못해서
취업전선만 「지옥」을 받들게
한다. 이런 양면 면화해 나
야 절망 절망인가. 자영의
사 자영자영면 격려하 한
다. ◆이름 막대한 사람들에
겐 가엾이 가고 저울이 시
잔되곤 일종의 부활 하를
의 절망면이 깨가 이스스할
나지 모른다. 그대의 고를
진들이 전했던 불명 다로기
어떤과 절망적인 深淵이 있
을 것이다. 그렇지만 절망이
여 「되스」 저 不死鳥의
魂을 기대해선 안되는가.